



"말씀 · 기도 · 감사의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연중 제14주일

2023년 7월 9일(제59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 9746

| | | |
|------|--------------------------|-------------------|
| 미 사 | 교중 미사 | 주일 오전 9시 30분 |
| | English Mass | 주일 오전 11시 |
| | 평일 미사 |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
| 고해성사 | 주일/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 |
| 유아세례 | 사무실로 문의 | |

| | |
|-------|------------------------|
|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 신심 단체 | 레지오 마리아: 주일/평일미사 전후 |
| | 울드레아: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
| |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

입당_26 봉헌_211, 513 성체_197, 153 파견_6 / 해설_최유진 (마리스텔라) 제1독서_문성익(사도요한) 제2독서_김미정(안나)
Narrator_ 1st Reader_Rolly Bantugan 2nd Reader_Theo Lee Prayer_Lucia Joo

입당 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즈카 9,9-10 Zechariah 9:9-10

화답 송 | 시편 145(144),1-2,8-9,10-11,13-14(1 참조)
Psalms 145:1-2, 8-9, 10-11, 13-14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 my king and my God.
or. R. Alleluia.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I will extol you, O my God and King, and I will bless your name forever and ever. Every day will I bless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

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Let all your works give you thanks, O LORD, and let your faithful ones bless you. Let them discourse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speak of your might.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 The LORD is faithful in all his word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lifts up all who are falling and raises up all who are bowed down. ◎

제2독서 | 로마 8,9,11-13 Romans 8:9, 11-13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Blessed ar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you have revealed to little ones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

복음 | 마태 11,25-30 Matthew 11:25-30

영성체송 |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배춘자 로사리아, 양정미 (Suzie)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짐'의 굴레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짐, 자신만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참으로 의아하지요. 삶의 멍에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멍에가 편하고 가볍다니요. 아아,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잠시 광야 체험을 하는데 쏟아지는 햇살과 건조한 공기가 저를 에워쌌지요. 그리고 저편에 어미 나귀가 어린 나귀와 함께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아, 잔인한 사람들!" 그러자 가이드 분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레를 끄는 것은 전적으로 어미의 몫인데, 그럼에도 어미의 멍에가 어린 나귀의 목에 연결된 이유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귀가 수레를 끄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실제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어미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는 그저 줄에 묶여만 있어 약간의 무게만 견디며 어미 나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뚜렷해지지요. 결국,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가볍거나 쉽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앞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질 테니 당신에게 오라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봤던 어린 나귀의 멍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수레의 무게가 어쩔든 가냘픈 몸 에 걸치고 있는 멍에는 그에게 매우 버거워 보였지요.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실제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며 함께 걸어가는 어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성격이 워낙 고집불통이라 가봤던 길만 가려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었요. 주님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며 천천히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짐의 무게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사 안에서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시는 주님의 성체가, 주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짐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저는 철없이 칭얼거리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할 수밖에요.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 | | |
|---|---|--|--|
|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 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
|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 <p>민화교실 전통민화 /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



■ 7월 주요 전례 일정

- 7월 16일(주일): 꾸르실료 참가자 파견 예식(교중미사 중)
- 7월 20일(목) - 23일(주일): 서중부 여성 제14차 꾸르실료
- 7월 20일(목) - 21일(금): 평일 미사 없음

■ 사랑의 모후 꾸리아 7월 월례 모임

- 일정: 7월 9일(주일), 10시 45분 -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요아킴*안나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7월 16일(주일) 미사후, 오전 11시 - 오후 3시
- 장소: 성당 체육관
- 특강: 슬기로운 노년 생활(강사: 권영랑 마리 크리스티나 수녀님)
- 회원 모두가 참석하시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세례성사 · 견진성사 · 첫영성체 기념 사진 수령

- 성사 기념 사진과 Certificate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상: 파스카 성야 세례 및 첫영성체(4월 8일), 학생 견진성사(5월 13일), 어린이 첫영성체(5월 14일)
- 문의: 성당 로비 사무실 테이블(925-871-9746)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 주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 15,4)
- 강사: 윤승식 모세 신부님
- 일시: 8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 교회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 참가비: \$25
- 신청/문의: 성령기도회(925-858-7037)

■ 성령대회 가정봉헌 및 사업체봉헌 신청 방법 안내

- 신청하신 모든 가정과 사업체를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특별 봉헌드리고 성경구절과 함께 성령대회 책자에 넣어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거나 페이지 사이즈와 봉헌내용 (가족들 이름과 세례명 혹은 사업체 정보) 을 카톡 (925-858-7037)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 7월 9일(주일)
- 신청/문의: 성령 기도회 (925-858-7037)
- 가정, 사업체 봉헌 사이즈별 봉헌액:
\$25(1/16 페이지)
\$50(1/8 페이지)
\$100(1/4 페이지)
\$200(1/2 페이지)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 주일헌금 | | 교무금 | 성소후원 | Bishop's Appeal | 합계 |
|--------|--------------|--------|-------|-----------------|--------|
| 교중미사 | English Mass | | | | |
| \$1332 | \$593 | \$4950 | \$135 | \$205 | \$7215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곽진호(7-12), 기원태(1-3), 김지용(6), 두신(5,6), 류경걸(7-9), 변태근(7), 유근열(7,8), 이연호(7,8), 이종구(6-8), 조현대(7), 조현제(1-6), 채성우(7-9), 황희숙(7)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류경걸(7-9), 변태근(7), 이종구(6-8), 조현대(7), 채성우(7-9)

- Bishop's Appeal

- 두신(5,6), 류경걸(7-9), 변태근(7), 이종구(6-8), 조현대(7), 채성우(7-9)

- 감사헌금: 기원태, 두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개인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황에 따라 착용합니다.
-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